

安東大宗會報

發行人 金明會
 編輯人 金金鳳
 印刷人 金金鳳

發行處
 서울·東大門區敬禮洞112-49
 安東金氏大宗會中央本部
 電話: 244-3717
 對講口座: 010983-31-0513115
 私書函: 서울 清溪郵遞局 137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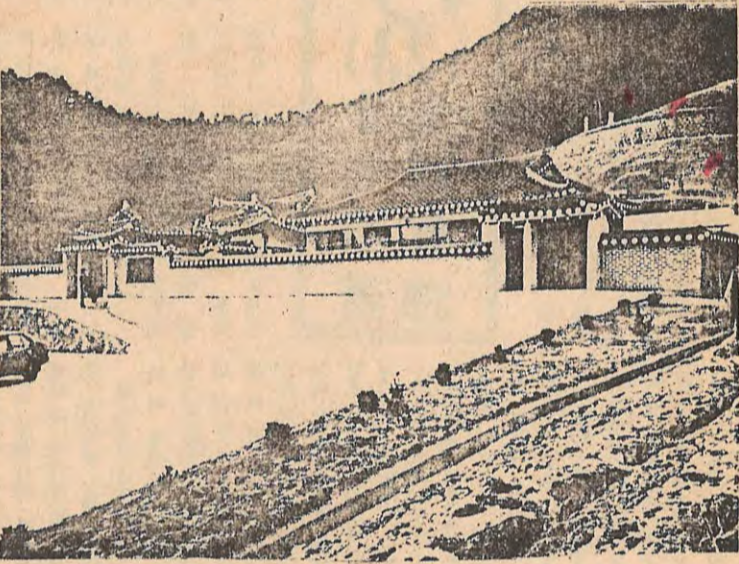
永慕齋重修 및 齋直舍新築

清原郡梧倉面慕亭里 按廉使公派大宗中

按廉使公派 大宗會에서는 清原郡梧倉面 慕亭里의 按廉使公墓下의 永慕齋와 神道碑閣을 重修하고 齋直舍 新築、周圍壇장 改築 및 進入路 鋪裝等 宿願事業을 完工하고 지난 三月 二十日 에 서울과 地方의 來賓과 많은 後孫들이 參席한 가운데 竣工式을 盛大히 舉行하였다.

宗會長人事

宗會長 金明會
 宗會長 金金鳳



永慕齋全景

按廉使公派는 麗末에 官職이 政堂文學門下侍郎으로 堂々 氣節을 世上에서 所推하는 바며 鄭隱鄭先生과 牧隱李先生과 從遊友善하고 共陳規諫하기로 著名하시더니 京官內職으로 있던 新朝創業에 輔弼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公을 嶺南地方 按廉使로 黜斥하여서 清州地方에 滯留中에 鄭隱鄭先生이 迫害를 당하였다는 消息을 듣고 松京으로 急히 달려가 杜門 洞諸賢과 盟約을 하고 清州北 梧根村에 隱居하여 있을 때 公의 舍弟石樓士安께서 兄任을 問候하고자 梧根村에 外使 按廉使公을 모시고 있을 때에 桓谷元先生이 그 자리에 드리 가자 牧隱李先生과 陶隱李先生과 醇隱申先生이 이어서 더 러와서 六人이 同席하여 麗朝亡國之臣으로서 서로 最後의 情懷를 痛고 向後事를 談話할 때 按廉使公께서 말씀 하시 기를 我之過去는 恒常紛擾하여 餘暇가 없었으나 이로 부터는 閑暇 한 몸이 되었으니 앞으로 뜻을 性理學에 두고 餘生을 마치려 하노라 하고 最後袂別을 告한 것임니다 其後 李太祖가 左司

諫으로 屢徵하였으나 不就하자 親書를 보내어 불은니 끝내는 深山中에 隱退하고 不至하지 或이 罪를 짓자고 諫하니 太祖曰 伯夷叔齊 猶라 하고 그 隱居山을 가리켜 陶山이라 하였고 歿後 에 太祖가 들머시고 敎是하여 이르기를 一丘陶山이 萬古의 首陽이라고 表其節을 誌합니다 그 후 試士官이 遺命平塚 四字 一丘陶山이 萬古首陽八字를 出題賦詩하여 忠節을 贊揚 하였읍니다

公께서 臨終時에 子孫에게 遺言하기를 我는 麗朝舊臣이라 國危에 不能救國하고 國亡에 不能借亡하였으니 我는 天下之 罪人이라 何面目으로 地下에서 先王과 先人들을 拜見리요 我死이든 某를 平葬으로 하고 表石도 세우지 말아서 高麗亡國臣 金某之墓라 指稱함이 없게 하고 麗朝에 벼슬한 我子孫은

(非賣品)
 이 會報는 通常會費 年間 2千원 以上을 納入한 宗親에게 無償으로 配付 하오니 未納入한 宗親께서 는 卽時에 納付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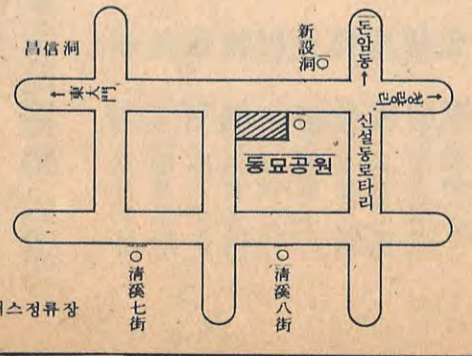
新朝에 다가서 벼슬하지 마라서 失據臣이 되지 말라며 忠孝二字를 遺訓으로 남기였읍니다 그 아들 그 孫子가 父祖之墓를 平葬으로 하고 나의 墓를 어찌 封墳을 하리요 하고 孫子代까지 三代를 내려 平塚으로 하여 그 후 累次 兵火로 山所를 失傳하였 다가 甫宗四年戊午에 后孫이 求山하다가 誌石을 이어서 公의 遺窆로 알고 山所를 찾아서 墓下에 永慕齋를 建立하고 公의 遺節를 기리며 詩書를 講論講讀하는 講堂兼 齋室로 使用하여 三十年後인 甫宗三十四年에 松泉公書院을 세우게 되었읍니다 山所는 遺訓을 새겨우쳐 平塚으로 守護 하여 내려오다가 李氏朝鮮이 遜國한 後에 封築을 새로 하 고 石物과 墓碣 및 神道碑와 碑閣을 建立하고 오늘에 이른 것임니다

按廉使公略傳

公諱士廉이요 麗季人也 上洛公諱方慶之玄孫이요 上洛君諱載之子也 開國一等元勳翼元公諱士衡之兄也 公則夷齊之忠으로 有詩明志曰 烈女猶不更이 어는 忠臣 豈事二리요 夷齊 餓死心과 箕子 罔僕 義로 退隱于 陶山하 고 翼元公則以 伊尹之道로 興運而 進曰 何事非君이 며 何使非民이 리요 爲國元勳으로 配享于 廟庭하니 有是 兄有是 弟三難也 有是 弟有是 兄亦難也 兄之道는 夷齊也 弟之道는 伊尹也 弟之而 臣이 子我朝有 光敷 後世士類之所 當於 式者也

1989年度 定期總會開催公告

- 一、日 時: 一九八九年 四月 三〇日(日) 上午 十一時
 - 二、場 所: 서울·東大門區 崇仁洞 東廟 公園
 - 三、案 件: 1. 一九八八年度 決算報告의 件
2. 一九八九年度 豫算承認의 件
3. 其他事項
 - 四、會 費: 五千圓(通常會費 包含) 書食 및 紀念品 提供
- 一九八九年 四月 一五日 會長 金明會 白



1989. 3月末 現在 預金殘高現況

예금잔고명세서

수익증권저축인출내역

1989年 3月31日 현재

일 자 취급점·기호	적 요	반 환 금 액 수	수 수 료 매매기준가	평 가 금 액 잔 고 액 수
880804 26 I	*657,720	JAE-TU-JA		*6,824,499
	*657,720			*6,824,499

순번	구분	종 별	잔 고	미기개이자	총 계
1	일반	자유저축	14,456,768		14,456,768
2	"	거치식	10,571,074	631,939	11,203,013
3	"	"	34,906,325	2,086,701	36,993,026
		계	59,934,167	2,718,640	62,652,807
4	특별	자유저축	8,514,996	83,752	8,598,748
		계	8,514,996	83,752	8,598,748
5	장학	거치식	6,824,499	499,213	7,323,712
6	"	계	17,391,946	1,272,221	18,664,167
7	"	자유저축	1,173,000	12,594	1,185,594
		계	25,389,445	1,784,028	27,173,473
		총 계	93,838,608	4,586,420	98,425,028

수익증권저축인출내역

일 자 취급점·기호	적 요	반 환 금 액 수	수 수 료 매매기준가	평 가 금 액 잔 고 액 수
870916 26 I	*2,996,678	계 부 차	1,000.00	*31,564,570
880914 26 I	*3,341,755	JAE-TU-JA		*34,906,325
	*3,341,755			*34,906,325

종목: 가(9)

면에서이행

년 월 일	취급점 기호	지 금 액 잔 고(목표)금액	입 금 액	잔 고액수(금액)	잔 고액수(1년 개월)	평 가 잔 고 액 수
880226 26 C						THANK YOU
880914 26 I (JAE-TU-JA)			*10,000,000	*9,559,042		*10,000,000
			*1,012,032	*10,571,074		*10,571,074

수익증권저축내역

일 자 취급점·기호	적 요	반 환 금 액 수	수 수 료 매매기준가	평 가 금 액 잔 고 액 수
880520 26 D	*20,000	JAE-TU-JA	1,083.50	*7,922,367
880609 26 I	*448,051		1,000.00	*7,959,880
880912 26 W	*10,000		1,021.90	*8,124,202
890225 26 D	*20,000			*8,514,996
	*18,718			*7,968,813

수익증권저축내역

일 자 취급점·기호	적 요	반 환 금 액 수	수 수 료 매매기준가	평 가 금 액 잔 고 액 수
890225 26 W	*800,000			*8,141,125
890228 26 C	*748,055			*7,618,924
890306 26 E	*2,700,000			*8,947,982
	*2,520,420			*8,366,979
890328 26 C	*1,000,000			*11,663,127
890401 26 C	*1,700,000			*10,887,399
	*1,574,454			*12,741,408
				*11,814,665
				*14,456,768
				*13,389,119

MEMO 208-208-20749

수익증권저축내역

일 자 취급점·기호	적 요	반 환 금 액 수	수 수 료 매매기준가	평 가 금 액 잔 고 액 수
870328 26 W			1,068.96	*15,184,657
870804 26 I	*1,510,715	계 부 차	1,000.00	*14,205,075
880804 26 I	*1,510,715	JAE-TU-JA		*15,715,790
	*1,676,156			*17,391,946

수익증권저축내역

일 자 취급점·기호	적 요	반 환 금 액 수	수 수 료 매매기준가	평 가 금 액 잔 고 액 수
881213 26 C	*200,000		1,037.32	*649,125
881228 26 D	*20,000		1,042.17	*672,160
890105 26 D	*500,000			*644,962
890225 26 W	*478,653			*1,173,729
	*20,000			*1,123,615
	*18,836			*1,173,000
				*1,104,779

隨 聞 隨 錄

서울 城東區 紫陽洞 翼元公派 在 冕

*민음의 등불

서로 믿는다는 것은 아름다움 중의 으뜸이며 참되고 착한 사람들의 지름길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은 더욱더 매달라가고 있음을 흔히 목격하는 수가 허다한데 분명히 어딘가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종교적인 원죄를 논하고, 사회심리 학적인 분석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들의 생활, 역사, 문화 속에 뿌리깊이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자기 자신만을 믿는 풍조가 세상을 휩쓸게 되며 목숨을 건지기 위해 신의를 팔아야 했고, 살아남기 위해 눈치를 봐야만 하는 실로 가혹한 시련과 한많은 고통의 변화라 생각된다. 새시대는 정보산업 사회이며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분업과 전문화의 사회이다. 서로 믿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21세기와 함께 다가오고 있다. 믿음은 곧 생존의 기틀이 될 것이며 불신은 자기 자신은 물론 나라까지 망하게 할 우려가 있다.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리하여 불신의 뿌리를 100년이 걸리면 200년이 걸리는 기어이 뽑아내야만 한다. 이것이 현대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 생각한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중벌로 다스림으로써 불신외식의 뿌리를 뽑아야 하며, 신뢰와 사랑과 상부상조를 우리들 시대의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며 생활속에 정립시켜 나가야만 한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일하던 시대는 번영을 이룩했지만 서로 불신하던 시대는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으며 심지어는 나라마저 빼앗기는등 온민족이 불행한 생활을 겪어야만 했었다.

이제 불신외식이나 불신평토가 없는 밝은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스스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남을 믿을수 있는 사회는 내가 만들어야 하고, 남이 나를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 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스스로 불리해진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서로 믿는다는 것은 사회를 밝고 깨끗하게 하며 화목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나 아닌 남을 믿는 것이며 그러므로 서로 의지할 수 있고 하나보다 큰 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서로 믿고 마음편히 사는 나라

사람 살기 좋은나라는 부가 쌓인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믿음이 차 있는 나라다. 가난해도 식구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는 가정이 좋은 가정인듯이 나라도 마찬가지다.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형제끼리 서로 원수짓는 집안이 부럽지 않듯이 국민소득은 높으면서도 사람끼리 서로 못믿는 험한 사회라면 그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10년전만 해도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칭찬했다고 한다. 즉 저녁 길을 활보해도 안전하고, 장사가 물건을 속이지 않고, 가난해도 친절하나라고 칭찬했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졌었다. 말하자면 친절하나라고 경계하라고 서로 일러주고 밤에는 위협하니 길에 나가지 말라고 서로 당부하면서 한국을 찾는단다. 또한 교통신호를 너무 믿지 말라고도 서로 이른다며 몰라보도록 발전하고 잘살게 되었다고는 말하면서도 한국은 참으로 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한다.

옛날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고 타일러 보냈는데 지금은 무어라고 자식들에게 당부해야 하나? 선생님 말씀 골라서 들으라고 해야 하나? 예전에는 남에게 공손하라고 가르쳤지만 이제와서는 낯선 사람이 친절히 말을 걸면 대답 말고 도망가라고 가르쳐야 할 판이 되어가고 있다니 말이다. 참으로 무서운 불신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좋은 사회의 척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수로 잴다면 우리사회는 계속 퇴보하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좋은 사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의 주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하고 싶은일 할수 있고 남의 자의에 따라 위협을 받게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사회가 아니겠는가?

사회는 근본이 서로 믿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라면 좋은나라 만드는 일에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믿는 풍토를 만드는 일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우선 순위로 말한다면 바로 이 믿음의 회복이 앞서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경제발전, 제도의 근대화 등등이 따라야 할 것이다.

믿음의 사회를 만들려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까.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니 믿을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르게 키우는 교육이 가장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선생은 거짓을 가르쳐서는 안되고, 어른은 거짓을 보호해서도 안되며, 정치인들은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우며 사회의 믿음을 깨는 자는 모두 힘을 합쳐 벌주고 다루어 나가야 한다. 서로 믿고 사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 스스로 해야할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요즘 우리는 정치발전, 경제발전, 사회발전 등등의 얘기를 자주 주고 받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좋은 세상 모두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다.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 나는 한마디로 서로 믿고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 좋은 사회라고 단정하고 싶다.

會館內各店舖賃貸料明細書

(1988. 4. 31)
(1989. 3. 31)

敬順大王陵享奉行

층 별	평수	점포명	성명	보증금	현행 임대료	0.05% 인상액	합계	10% 부가가치세	총합계
지하실	63평	한국제책소	김금복	2,500,000	510,000	26,000	536,000	53,600	589,600
1층	13평	여울목	박준영	2,500,000	182,000	9,000	191,000	19,100	210,100
"	10평	프랑스제과	김태근	2,000,000	182,000	9,000	191,000	19,100	210,100
"	10평	중량약국	원종구	2,000,000	182,000	9,000	191,000	19,100	210,100
"	15평	안동상회	김재현	2,500,000	242,000	12,000	323,400	25,400	279,400
"	16평	금융식당	유금호	4,000,000	294,000	0.10% 29,400	692,700	32,340	355,740
2층	30평	안동다방	정명숙	7,000,000	357,000	0.10% 35,700	393,000	39,270	431,970
"	12평	안국화재	이행수	1,500,000	130,000	(미인상)	130,000	13,000	143,000
"	13평	삼양상사	박효서	2,000,000	172,000	9,000	181,000	18,100	199,100
3층	60평	유니하우스	김배곤	8,000,000	500,000	25,000	525,000	52,500	577,500
합계				34,000,000	2,751,000	164,100	2,915,100	291,510	3,206,610

비고: 금융식당과 안동다방은 1989년 3월부터 임대료 10% 인상

新羅 敬順大王 陵享는 年例行事로서 다
음과 같이 奉行하오니 많이 參班해 주시
기 仰望합니다.
日時: 一九八九年 五月七日(日)
集會場所: 新羅汎 金氏宗院 앞
※ 鍾路三街 團成社에서 秘苑 쪽으
로 切제 네거리 과고다公園 琴道
路邊
會費: 壹萬圓
往復車費 및 晝食 紀念品 提供

壹萬圓 按廉使公派 甲正道 默學(里門洞)

壹萬圓 大司成公派 提學公派 應(天原)

壹萬圓 提學公派 翼元公派 正(瑞山)

壹萬圓 都評議公派 都評議公派 正(義城)

壹萬圓 提學公派 提學公派 文(天原)

壹萬圓 翼元公派 翼元公派 基(大邱)

貳萬圓 按廉使公派 按廉使公派 榮(上溪洞)

貳萬圓 翼元公派 翼元公派 世(紫陽洞)

貳萬圓 都評議公派 都評議公派 允(紫陽洞)

參萬圓 提學公派 提學公派 在(城內洞)

五萬圓 楊州 議政府·宗親會 會(佛光洞)

五萬圓 副使公派 副使公派 秀(城內洞)

五萬圓 副使公派 副使公派 植(紫陽洞)

五萬圓 副使公派 副使公派 冕(紫陽洞)

五萬圓 副使公派 副使公派 會(鐵原)

五萬圓 副使公派 副使公派 先(鐵原)

贊助人名單

按廉使公派 金世哲

按廉使公派 金甲默

副使公派 金昌先

江原道鐵原郡鐵原邑花地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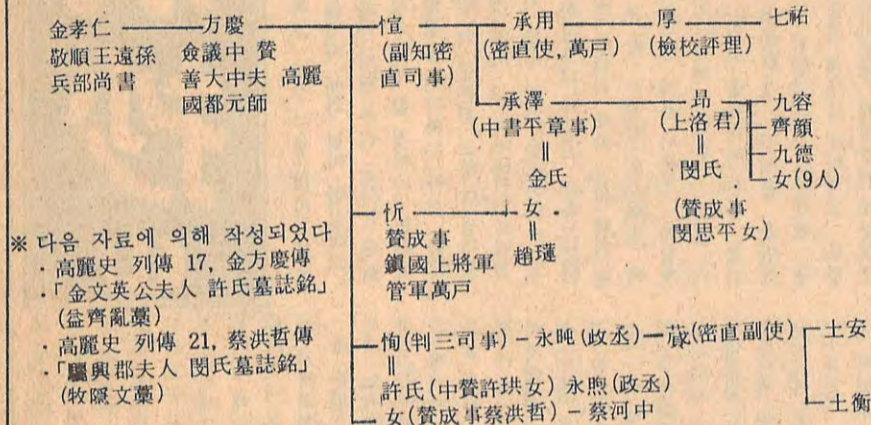
碩士學位論文

金方慶研究

清州大學校大學院史學科 李相哲

● 略 歷 ●

- 1953年生
- 1981年 清州大學 歷史教育과 졸업
- 1986. 8 清州대학교 대학원 史學科 졸업
- 현 清州신흥고등학교 교사.



※ 다음 자료에 의해 작성되었다
 · 高麗史 列傳 17, 金方慶傳
 · 「金文英公夫人 許氏墓誌銘」 (益齊亂黨)
 · 高麗史 列傳 21, 蔡洪哲傳
 · 「驪興郡夫人 閔氏墓誌銘」 (牧隱文黨)

· 蔡洪哲傳에 「…… 初金方慶鎮北界 悅龍岡官婢生一女 洪哲娶之 生河中河老……」
 · 金方慶에게는 딸이 하나 더 있었다. <高麗史> 列傳 卷16 趙冲傳에 「…… 休席家蔭又籍妻父金方慶……」 또 <高麗史> 金方慶傳에 「…… 方慶與子恂 璉趙休……」이라 하였다.

結 論

金方慶(1212~1300)은 武臣執權期에 출생하여 高麗의 對蒙항쟁이 일단락되고 새로운 麗元관계가 성립될 무렵, 武人으로 크게 出世하여 당시 高麗의 最高官位에 올라 그의 家門을 유력한 貴族 家門으로 끌어올렸다. 金方慶은 성실함과 충직하고 정렴함을 바탕으로 刑部尚書 樞密院副使가 되었으나 그가 뒷날 最高의 權力者로 등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 金方慶은 元宗 10년(1269) 林衍의 元宗 廢立사건과 崔坦의 반란때 蒙古와 高麗王室 및 太子諱(뒷날 忠烈王)과 밀착된 관계를 맺으므로 자신의 出世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三別抄를 토벌하여 크게 성장하니 珍島 三別抄 토벌후 그는 守太尉 中書侍郎 平章事가 되었으며 耽羅 三別抄토벌 뒤에는 侍中이 되어 最高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셋째, 金方慶은 日本 遠征에서 활약하여 크게 浮上하였고 마침내는 당시의 유력한 權力家의 하나가 될수 있었으니 제1차 遠征후 上柱國의 勳爵을 받았으며, 또한 元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뒤 제2차 遠征후에는 推忠靖難定遠功臣 上洛公을 더하여 致仕케 하였으며 上洛郡 開國公의 爵號를 더하여 食邑 一千戶와 食實封 三千戶를 封하였다.

金方慶은 元宗이나 忠烈왕이 가장 크게 의지한 人物이었으며 元으로부터 지극한 歡待를 받았다. 三別抄의 저항과 日本 遠征으로 高麗가 크게 시련을 겪을때 이 難局을 擔當하고 出將入相하면서 누렸던 그의 지위는 獨步의인 것이었다. 그는 元宗 14년(1273) 侍中이 된 다음부터 忠烈王 9년(1283)에 致仕할 때까지 首相의 자리를 지켰고 致仕한 뒤에도 20년 가까이 더 살면서 國家大事의 자문에 응하였다. 이와같이 金方慶의 활동으로 이 家門은 당시 가장 유력한 존재로 擡頭되었다.

金方慶은 元宗 11년(1270) 59세 때부터 元宗 14년(1273) 62세 때까지 三別抄 토벌을 위한 麗蒙(元) 연합군의 高麗측 將帥로 출정하여 소극적인 蒙古軍과는 달리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전투에 임하였다. 또 그는 三別抄 토벌 과정에서 誣告로 審問을 받다가 無罪釋放되어 다시 토벌에 임한 일이 있던바와 같이 굳은 意志로 公私의 난관을 극복하였던 것이다.

오랜 戰亂으로 피폐한 高麗가 元의 무리한 요구에 여러가지 부담을 지고 日本 遠征에 참가하였으나 전투에 임하여서만은 元의 소극적 태도와는 달리 적극적 자세로 임하였으며 功防戰에서는 특히 金方慶이 無敵의 승리를 계속하였다. 金方慶은 出將入相의 역할을 十分 발휘하여 제1차 日本 遠征(忠烈王 즉위년 1274)에서 돌아온 뒤 元에 使臣으로 파견되어서는 再遠征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으며, 忠烈王 3년 首相으로 있을 때에는 韋得儒 등의 誣告로 無慈悲한 고문을 당한 일이 있었으나 不讓에 屈하지 않는 굳은 意志로 이것을 극복하고 제2차 遠征에 참여하였다. 제2차 遠征에서도 水戰에 익숙치 못한 元軍은 항상 소극적이었으며 回軍을 豫용하기까지 하였으나 金方慶의 高麗軍은 局地戰에서 승리를 거듭하였다.

金方慶은 세 아들을 두어 子孫들도 크게 번창하였으나 그의 二男 金柄이 忠烈王과 忠宣王 사이 父子간의 갈등이 생겼을때 忠宣王 편에 가담하여 金方慶 家門에 일 시적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金方慶이 죽었을때 당시의 執權者들이 禮葬까지 막았으며 忠宣王이 다시 즉위하여 宰相之宗을 지정하였을때 그의 家門은 여기서 탈락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孫子들은 瀋王 諱와 忠惠王 사이에 왕위 계승문제가 발생했을 때 忠惠王 편에 가담하여 다시 정치적 세력을 만회하게 되었다. 특히 曹顯이 亂을 일으켰을 때 王을 侍從한 功으로 그의 孫子 5명중 2명은 1等功臣, 1명은 2等功臣으로 封하여졌으며 뒷날 모두 宰相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와같이 金方慶 子孫들의 활발한 사회적 進出은 이 집안을 뒷날까지 번창하게 만들었다. 끝으로 金方慶의 出世기반에 대한 좀더 깊은 研究가 아쉬우며 앞으로 金方慶 出世의 성격에 대한 분석 비판이 있어야겠다.

參考文獻

(1)
 1. 《高麗史》
 2. 《高麗史節要》
 3. 《朝鮮王朝實錄》
 4. 《新增東國輿地勝覽》
 5. 《韓國金石文》中世下 許興植編著 亞細亞文化社刊
 6. 《東文選》
 7. 《新元史》
 8. 《元史》

(II)
 9. 金澤基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就하여(1), (2), (完)> 《震檀學報》제9, 10, 13권
 10. 金澈珉 <元の 日本遠征과 麗元關係> 《建大史學》3, 1973년
 11. 朴亨杓 <麗蒙聯合軍의 東征과 그 顛末> 《史學研究》21, 1969년
 12. 高柄翊 <麗代征東行省의 研究(上), (下)> 《歷史學報》제14, 19집
 13. 李起男 <忠宣王의 改革과 詞林院의 設置> 《歷史學報》제52집
 14. 閔賢九 <趙仁規와 그의 家門(上), (中)> 《震檀學報》제42, 43권
 15. 閔賢九 <高麗後期權門世族의 成立> 《湖南文化研究》6, 1974년
 16. 李根圭 <元の 日本征伐考察> 《湖西史學》1, 1972년
 17. 金潤坤 <三別抄의 對蒙抗戰과 地方郡縣民> 《東洋文化》20, 21, 1981년
 18. 邊太燮 <高麗後期の 武班에 對하여> 《서울大論文集(人文社會科學)》12집, 1966년
 19. 邊太燮 <高麗宰相考> 《歷史學報》제35, 36집
 20. 李鉉淙 <高麗와 日本과의 關係> 단국대 부설동양학연구소 제6회 동양학 학술회의강연초
 21. 金水珍 <高麗譯官考-麗元關係를 中心으로> 東亞大學校 碩士論文 1981년
 22. 金成俊 <麗代元公主出身王妃의 政治의 位置에 對하여> 《韓國女性文化論叢》1, 1958년
 23. 周采赫 <洪福源一家와 麗元關係(一)> 《史學研究》24, 1974년
 24. 朴龍雲 <高麗時代의 定安任氏, 鐵源崔氏, 孔巖許氏家門의 分析> 《韓國史論叢》3, 1978년

(III)
 25. 國史편찬위원회 《韓國史》7, 8
 26. 震檀學會 《韓國史》中世編 乙 西文化社刊
 27. 金澤基 《高麗時代史》東國文化社 1961년
 28. 朴龍雲 《高麗時代臺諫制度研究》一志社, 1980년
 29. 曹龍承 《韓國系行譜》天 P641이하, 1980년
 30. 《安東金氏世譜》
 31. 高大民族文化研究所 《韓國文化史大系》科學技術史
 32. 崔碩男 《韓國水軍活動史》鳴洋社刊, 1965년

<p>全國勞動組合聯盟 中央常務執行委員</p> <p>組織局長 金 俊 會 (提學公派 宗孫)</p> <p>서울·江南區 驛三洞 678-27 電話: 554-0890~4</p>	<p>大司成公派</p> <p>서울·東大門區 里門3洞 551-50</p> <p>金正學</p>	<p>按廉使公派</p> <p>驪州郡 驪州邑 興文里</p> <p>金允植</p>	<p>翼元公派</p> <p>仁川市 東南區 閔石洞 七二1-1 住公아파트 8棟 301</p> <p>金振燮</p>	<p>都評議公派</p> <p>義城郡 點谷面 沙村里</p> <p>金熙國</p>
---	---	---	---	---

三別抄

(14)

(전호에서 계속)

강도(江都)로 떠난지 수일후에 돌아온 정자여(鄭子瑗)의 말에 의하면 「임연(林衍)은 이미 지난(二)월에 을화병(鬱火病)으로 죽고, 아들 임유무(林惟茂)가 교정별감(敎定別監)으로서 실권을 잡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권감국사(權監國事)로서 강도에 남아있는 원종의 둘째 왕자 손안후(孫安侯)를 폐하에 의탁하고 「세조에게 주상할 자자를 이미 보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원종과 태자가 연경을 출발한 때가 「二月十五日」에 임연이 강도에 있는 임연의 사망하였다고. 임연은 장차 다쳐를 자신의 운명을 걱정하다가 을화병이 생기고 증세는 점점 악화되어 등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끝내는 사망하였다. 임연이 죽자 권감국사로 있는 손안후는 임연의 아들 유무를 교정별감으로 삼고 「二月 七日」에는 남양(南陽) 김지서(金之瑞)로 하여금 「임연의 사망을 알리는 사자를 연경(燕京)에 보냈다.」

정자여의 보고를 받은 두령가(豆鞞哥)의 부대는 동양부(東寧府)를 출발해서 개경으로 향하였다.

한편으로 원종은 다시 정자와 대장군이 분회(李汾禮)를 과견하여 국내에 있는 모든 중신들에게 유시를 하였다.

「황제폐하께서는 가장 신임을 행신(行信)의 두령가 국왕과 조 병상(趙平章) 등으로 하여금 군사들을 시키고 「귀국인(寡人)을 호위하여, 귀국케 하라」고 분부하였다. 이때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이 돌아가서 백성을 실유

하고, 모두 구경(舊京)으로 옮겨서 옛과 같이 안심하고 살게 되면 우리 군사는 바로 철수하게 할 것이다. 만약에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 신분의 고하를 생각할 것 없이 그 처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잡아 올것이다」라고 하셨으니 지금의 출륙(出陸)은 옛날의 예와 같이 하지 말고 서부터 작은 마을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처자를 거느리고 출륙하되 신중(新中)과 행자(行資)에 충당할 것으로 대비하고, 또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대군의 도착을 보면 반드시 놀래고 겁낼 것이 우려되니 속히 유시를 널리 전해서 각도의 백성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생업을 즐기며 대국의 왕사(王師)를 맞이하도록 하라」

이러한 유시에 이어 또 당부하기를 「사직(社稷)의 안위(安危)가 이 한 번의 일에 달렸으니 마땅히 각각 마음을 다하라」

이러한 유시가 강도에 전해지자 문신들은 그 뜻에 순종하였으나, 교정별감(敎正別監)으로서 강도의 실권을 잡고 있는 임유무(林惟茂)가 그 뜻을 좇지 아니하므로 해서 강도에는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임연의 아들이요, 삼별초의 불투권을 잡고 있는 실권자 임유무는 주로 방호사(水路 防護使)와 산성별감(山城別監)을 각과 과견하여 백성을 모아 보호한다는 명분을 세워 선동하면서 「내내 기역하다」 어사중승(御史中丞) 홍문개(洪文介)와 직문하사(直門下省事) 송송

레(宋松禮)에게 살해되고 도당

인사공(司空) 이 응렬(李應烈)과 추밀원 부사(樞密院副使) 송군비(宋君斐)는 민선으로 유배시키고는 서방 삼번(三房三番)과 조성색(造成色) 같은 임유무에게 속된 조직을 모두 파헤치니 조야(朝野)가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또 한편으로 용천역(龍泉驛)까지 도착한 원종은 강도에서 과견된 사자로 하여금 임유무가 세기된 사실을 듣고 기뻐하며 「너희가 아들이 돌아가서 신물을 사자에게 내리 주었다. 이날 중승(中丞) 홍문개(洪文介)와 장군송분(宋份)·내원영(內園 令)·곽예(郭禮) 등이 이분회(李汾禮)와 더불어 행차소를 찾아와서 국왕을 맞이하였고 또 정당문학(政堂文學) 유천우(俞千遇)와 동지 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 박공(朴公)·우승선(右丞宣)·채인규(蔡仁揆) 등이 차례로 나가 왕을 영접하였다.

원종은 개경에 도착하였다. 개경에 도착한 원종은 임유무의 죽음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제부터 환도를 반대하던 무신의 우두머리가 꺾였으니 이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환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나 절차를 의논하고 그날로 방문(榜文)을 고시하였다. 그러나 강도에 있는 삼별초의 주력군이 환도에 대하여 반기(反旗)를 들고 왕명을 거역하고 나섰다.

배중은(裨仲孫)을 선두로 한 삼별초는 환도를 반대하고 왕명에 거역할뿐 아니라 나라의 창고인 금강고(金剛庫)를 부수고 곡식을 풀어 헤치면서 백성을 규합하고 부기를 탈취하여 전투태세를 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종은 삼장군 정자여를 강화로 보내서 삼별초에게 돈독히 설유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한편 개경의 승천부(昇天府)

에 추둔하고 있는 두령가는 아

직도 강도에 머물고 있는 임연의 처자(妻子)들을 모조리 체포하고 속히 환도를 실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고령의 군신들도 하루 속히 강화의 백성들을 개경으로 이주시킬수 있는 수단으로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끔 적 빠른 시일에 환도의 준비에 착수함과 동시에 강화의 주민으로 하여금 유지에 건넌 수 있도록 갖은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강도에 서는 「五月 二十三日」에 중신회의를 열고 환도의 시일을 공포함과 동시에 출륙을 촉구하는 조령을 선포하고 한편으로는 국왕의 환국영접을 방자하여 비빈(妃嬪)과 백관들이 「그날 十七日」에 개경으로 나와 버렸다. 그러나 강도에 남아있는 삼별초는 원종이 몽고에 대하여 굴욕적인 항복을 하였다는 구설로 정면으로 환도를 반대하고 노골적인 행동으로 대적하고 나서 강도에서는 또 다시 「한 혼란이 일어났다.」

그곳에서는 부분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방화(放水)를 감행하는가 하면 이러한 혼란을 이용해서 도적의 무리가 난무하고 머지나지 못한 백관의 가족과 양민들은 갈바를 몰라 방황하는 판국을 조성이나 문신으로서는 막을 도리가 없었다. 원종은 즉시 정자여를 강화에 과견해서 삼별초를 돈독히 설유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五月 三十日」에는 장군인 김지서(金之瑞)를 시켜 삼별초의 해산을 명령하고 그들의 명부(名簿)를 압수하여 개경으로 돌아왔다. 배중은을 비롯한 삼별초의 일당 무장을 하였고 「六月 一日」에는 이렇게 강력한 자제로 개경 환도를 거부하고 나선데 대하여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조위중(趙位重)과 정중부(鄭仲夫) 등이 반란으로 생취한 부친정지(武臣政府)가 최승헌(崔承憲)의 시대에 이르러서 조직된 삼별초는 「법위가

늘어남에 따라 권신에게 충성

하므로서 면전(免賤)되고 높은 지위에 오를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고 따라서 임연이 국왕(元宗)까지 마음대로 갈아치운 횡포로 말미암아 세조의 미움을 산 나머지 끝까지 항몽(抗蒙)을 주장하였으니 그 휘하에서 단련된 그들은 몽고군에 의해 죽음을 당하리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둘째로는 「四십여년」 동안 강도에서 몽고의 침략을 피해 온 「그 지구력(持久力)」으로 말미암지 대적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四십여년」 동안 고려의 조정이 강화도에서 몽고의 침공을 받자 아 니했다는 것은 대륙의 광야를 달리면서 기습전에 능숙한 몽고병이 수전(水戰)에는 약하고 하물며 조선(造船)에 어두운 탓이었지만 이제 몽고는 「남송(南宋)」을 패망시키고 「상수(商水)」 모두 몽고에 귀부하였으니 세조의 마음먹기에 따라 강화의 상륙은 시간문제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이유의 하나로 들 수 있었다.

김지서 장군이 명부를 압수해가 버리자 삼별초의 장군 배중은(裨仲孫)은 노영희(盧永禧) 등과 더불어 강화의 각처에 사람을 파견해서 「지금 몽고군이 강화의 백성을 모조리 죽이려 한다」고 선동을 하였으니 이러한 선동은 배중은이나 노영희의 생각을 그대로 전한 바이었다.

배중은은 삼별초로 하여금 육지에 가까운 해안선을 봉쇄하고 나라의 보물과 무기(武器)를 간직하고 있는 금강고(金剛庫)의 문을 부수고 더욱 굳센 중을 비롯하여 삼별초의 일당 무장을 하였고 「六月 一日」에는 이렇게 강력한 자제로 개경 환도를 거부하고 나선데 대하여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셋째로 조위중(趙位重)과 정중부(鄭仲夫) 등이 반란으로 생취한 부친정지(武臣政府)가 최승헌(崔承憲)의 시대에 이르러서 조직된 삼별초는 「법위가

에 대하여 전면적인 대항의 태

세를 취하였다. 삼별초의 조직은 최승헌이 집권할때 썩썩하고 융망있는 친민(親民)에서 선발해서 자신의 신분보호와 재산의 수호를 위하여 편성된 부대로서 이를 야별(夜別抄)라 불렀으며 오직 야경(夜警)을 임무로 하는 소수의 인원이었으나 별초군에게도 공포에 따라 비술을 주게 되자 자원이 늘어났고 그 수효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니 두개사(都下)로 부르다가 다시 몽고와의 전투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도망쳤거나 혹은 풀려난 자들로 별초(別抄)라 할때부터 삼별초(三別抄)라 명칭이 생겼다.

이 삼별초는 언제나 권신(權臣)의 조아(爪牙)로서 권신의 힘으로 살았다. 또 권신에게는 삼별초만이 그들의 아성(牙城)이요 삼별초를 더욱 부식하고 권신의 위치를 존속하기 위해서 삼별초의 대우를 후하게 하여야만 했고 삼별초는 권신에게 충성함으로써 신분의 고하에 구애됨이 없이 상당한 배설자리를 얻을수 있었다. 이때 삼별초의 세력은 막강하였다. 이 막강한 세력으로 외적(外敵)과의 싸움에서도 언제나 우세하였으니 몽고와의 전투에서 그러하였고 「반번히」 침입하는 왜구(倭寇)를 막는다는 인세나 전투에서 이를 물리쳤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삼별초를 유일할한 나라의 기둥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삼별초」의 행동은 언제나 권신의 명령으로 움직였고 또 이렇게 하므로서 사병(私兵)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는 신념밖에 없었다.

(다음 호에 계속)

(元宗 記)

• 各種生花 • 꽃바구니 • 화환 • 화분

꽃

• 신속한 배달 • 저렴한 가격 • 宗親을 위한 特別奉仕

香田園芸

代表 金在均

주소 : 서울 ·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6
 ☎ 783-3166 ~ 7 (自) 552-5327